

동양 · KFC, TDI 덤핑관세율 3%

중국 상무부, 한국BASF 5% 확정 ... 일본기업은 최대 49% 적용

중국 정부가 한국, 미국 및 일본산 TDI에 대해 3-49%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으나 국내기업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비교적 낮게 확정됐다.

KOTRA 해외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국내 동양제철화학과 한국화인케미칼에 대해서는 3%의 확정 세율을, 한국BASF를 포함한 국내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확정했다.

일본의 Mitsui Takeda Chemicals는 4%, Nippon Polyurethane은 5%, 미국의 Bayer Polymer LLC는 7%로 결정됐으나 기타 미국기업은 28%, 기타 일본기업은 49%의 고율의 관세를 각각 부과받았다.

중국의 TDI 반덤핑 관세율

국가명	회사명	확정 세율
한 국	동양제철화학	3%
	한국화인케미칼	3%
	기타 한국기업	5%
미 국	BASF	28%
	Bayer Polymer LLC	7%
	기타 미국기업	28%
일 본	Nippon Polyurethane	5%
	Mitsui Takeda Chemicals	4%
	기타 미국기업	49%

국내 TDI 생산기업들은 중국의 반덤핑 관세율이 일본기업들에 비해 낮게 책정되더라도 중국시장에서 견제와 경쟁이 워낙 치열해 수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DI는 가방과 핸드백용 합성피혁, 자동차·선박용 폴리우레탄 도료, 자동차 내장재, 침구, 완구, 접착제 및 방수재로 이용되는 유기화학물질로 그동안 중국은 한국의 최대 TDI 수출 대상국이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1/26>